

CSU Monthly 2026년 6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CHOSUN
UNIVERSITY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최종 승인

대규모 간호 인재 양성 기반 확보... AI·웰에이징 교육 혁신 본격화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와 조선간호대학교(총장 박명희)의 통합이 5월 29일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대규모의 간호 인재 양성 기반을 갖춘 보건의료 특성화 통합대학이 본격 출범한다.

양 대학은 2020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통합 업무협약 체결, 통합추진위원회 및 실무TF 운영, 교직원 및 학생 의견 수렴과 이사회 심의 등을 거치며 약 5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교육 혁신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독립 단과대학 '간호대학'이 출범하게 되며, 오는 2027년부터 통합대학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교육과정과 조직·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에 들어간다.

입학정원 232명 규모로 운영될 통합 간호대학은 보건의료 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은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

보건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양 대학은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 역량과 데이터 기반 판단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보건의료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 확장과 교육-창업 연계를 통해 간호 분야의 산업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과 정주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통합은 조선대학교의 보건의료 분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웰에이징 글로벌대학 전략과 연계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보건의료 인재 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희 총장은 “양 대학의 통합은 오랜 숙원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기반 간호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 5월 첫째 주: 조선대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촉식 개최
- 5월 둘째 주: 조선대 장미원에 '광주 5·18·대동·소녀' 꽃으로 피어나다
- 5월 셋째 주: 끝없이 이어지는 '∞번째 장미'... 2026 조선대 장미주간 개최
- 5월 넷째 주: **2026 장미주간 '∞번째 장미' 지역민들 뜨거운 관심 속 대성료**
- 5월 다섯째 주: **조선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호남 유일 S등급 획득... 19년 연속 선정**

조선대, 호남 유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S등급 획득 19년 연속 선정

고교교육 지원부터 대입전형까지 전 영역 '최상위 역량' 입증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호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19년 연속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2개년 사업의 2차년도 연차평가로, 2025년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S등급(18개교), A등급(55개교), B등급(18개교)으로 구분됐으며, 총 58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조선대학교는 기본사업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기존 사업비에 더해 10%의 추가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호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S등급을 획득

하며 지역 고교교육 지원과 대입전형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선대학교는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며 지역 인재 선발과 고교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전형을 운영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 ▲전공 체험 프로그램 ▲입학설명회 및 교사 연수 ▲1:1 진학상담 박람회 운영 등이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을 통해 단위 학교에서 자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특수 과목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대학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인센티브 사업인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이주배경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역 가족센터, 교육청, 고등학교와 연계해 진로 탐색, 멘토링,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하며 교육 소외계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19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에 선정된 것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교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미로 물든 캠퍼스, 시민과 함께한 5월의 봄날

개교 80주년 기념 '2026 장미주간' 성황리에 마무리

형형색색의 장미가 만개한 조선대학교 캠퍼스가 음악과 웃음이 가득한 문화행사의 장으로 변신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교내 장미원 일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2026 장미주간'을 개최했다. '∞(무한)번째 장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조선대학교의 80년 역사와 지역사회와의 동행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행사는 가수 경서예지와 나태주의 축하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어 K-컬처·기획학과의 리딩극 '알라딘', 밴드 동아리 공연, 태권도학과 시범, 댄스·마술 공연과 버스킹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운영됐다. 미니장미 화분 만들기, '장미 어반스케치 페스타', 풍선 아트, 머그컵 만들기, 물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는 개교 80주년 기념 특별전 《정원을 거닐다》가 열려 장미와 예술이 어우러진 볼거리를 선사했다.

약 8천㎡ 규모의 조선대학교 장미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식재된 지역 대표 명소다. 2001년 의과대학 동문들의 기부로 조성이 시작됐으며, 민립대학의 설립 정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담은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장미주간은 공연과 전시, 체험이 어우러진 열린 문화공간이자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시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의 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선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instagram



facebook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 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 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